

‘평화통일위해 오렌지카운티 지도자들 모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미국의 영적회복,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오렌지카운티지역 지도자들이 모였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와 민주평통오렌지/샌디에고지역협의회(회장 안영대), OC한인회(회장 김진오)는 24일 아침 애너하임파크호텔에 모여 평화통일 기원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평화통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마음을 모은 교계,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조국의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대한민

국과 G20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의 영적 회복과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 차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OC교회 회장 박용덕 목사는 “OC지역 한인사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조국과 지역 사회를 기도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과 교회가 이 지역을 찾고 끌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지역 안영대 회장은 “조국의 평화통일은 평

OC교회, 민주평통 ‘평화통일 기원’ 조찬기도회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를 합창했다. ©지재일 기자

의 존재가치며 또한 기도제목”이라며 “평화통일은 물론 한인사회와 차세대를 위한 우리의 간구도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어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계지도자들과 평

통의 기도회는 처음일 것”이라며 “이런 뜻 깊은 기도회가 도화선이 되어 타 지역과 전역으로 퍼져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고통 받고 있으며, 미국도 동성애 문제와 이혼 마약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 지도자들이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다. 한 목사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 있다”며 “마지막 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적 국가의 사명을 확신한다”고 설교했다.

(박상미 기자)

파키스탄, 홍수로 국토 1/5 잠겨... 피해자 2천만명



한 가족이 홍수로 물에 잠겨 집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월드비전(로이 터스 · Faisal Mahmood) 제공

홍수로 무려 국토의 1/5이 잠긴 파키스탄에 2·3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월드비전이 전했다.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폭우로 1600명이 숨지고 어린이 180만

명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수업 재개는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다. 질병도 점차 만연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면역력 약한 아이들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350만 명 이상

국제사회 구호 움직임 점차 활발

명이 집을 잃었다. 경제적 손실 등 각종 피해를 합치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2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온갖 눈발은 황폐해졌고, 가족들은 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학교에는 학생들 대신 구호

의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침수 피해지역의 도로가 대부분 유실돼 치료를 위한 이동마저 쉽지 않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재해 현장을 찾은 뒤 “이는 국제적인 재난이고 전 세계가 직면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국제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유엔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힘을 모으고 있으며, 덴마크와 터키, 영국 등도 파키스탄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에 이어 인접한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주 라타크 지역의 중심도시 레(Leh) 일대

에도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레 지역 26개 마을에서만 813가구 4700여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고, 이중 완전히 집이 무너진 경우만 115곳에 달한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넘어온 네팔 사람들과 인도 비하르 지방 이주민들까지 현재 1천명 넘는 사람들이 홍수로 사망 또는 실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악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g

전화: 1-888-562-4453 (박상미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리투 증권회계사(CPA) 정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 축제로 10월 개막

미주한인 최초 기독교영화제 환태평양 영화제(PPFF: Pan Pacific Film Festival)가 오는 10월 2일 개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환태평양 영화제에는 총 4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느헤미야 밴드, 2세 CCM 가수 Clara Chung, 판토마임 공연자 조이, 사진전 등의 크리스천 문화공연이 동시 진행돼 축제 분위기로 거행될 예정이다.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리틀도쿄 아라타니 극장(244 S. San Pedro Street Los Angeles, CA 90012)에서 출품작 상영이 이어지며 같은 날 저녁 6시 대상(\$5,000), 최우수 단편(\$3,000), 최우수 다큐(\$3,000), 시나리오상(\$2,000), 선교 미디어상(\$2,000),

교육 미디어상(\$2,000), 교회 영상상(\$2,000), 애니메이션상(\$2,000) 등을 시상한다. 수상한 작품들은 저녁 8시부터 상영된다.

관람 티켓은 무료이며 영화제 홈페이지(www.panpacificfilm.com)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티켓을 받을 수 있다.

40여점 출품, 크리스천 뮤지션 공연도

환태평양 영화제는 작품들을 시상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출된 영화들을 수 만장의 DVD와 인터넷 웹사이트, 그리고 iPhone App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영화들을 통한 복음 전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태평양 영화제는 미디어 IT 선교단체 GMIT(Global&IT: 대

관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제 측은 "많은 크리스천 영화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꿈과 비전은 있지만 이러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며 "

표 이승중 목사)가 주최한다. GMIT는 자유주 목사(시라큐스장로교회), 성현경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등이 법인이사로 구성돼 있다.

GMIT는 Media와 IT를 통한 선교를 위해 환태평양 영화제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미디어 아카데미, 크리스천 영상물 Web, IT 컨퍼런스 및 난민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 714-956-7233 (GMIT) 이메일 : info@panpacificfilm.com 주소: 2115 W. Crescent Avenue, Suite 275 Anaheim, CA 92801

<박삼미 기자>



18일 열린 환태평양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담당 디렉터 주현국 전도사, 부 디렉터 이소명 자매, 마케팅 담당 민승현 형제 등이 포즈를 취했다 © 박삼미 기자

미주총신대 음대 교수 연주회

미주총신대 음대 2010년 연례 교수 연주회가 지난 22일 새생명요아시스코교회(김일형 목사)에

서 개최됐다. 이번 연주회의 출연 교수는 성악: 곽현주, 장상근, 기악: 박윤재, 박수정, 우광재, 작곡: 이호준, 황현정, 지휘: 김미선, 이재경, 반주: 남현선, 윤경미 합창: 미주 총신합창단 등이다.

<지재일 기자>



조수아 찬양콘서트, 빈곤 이동위한 '동행'으로

해외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해 CCM 가수 조수아씨가 찬양콘서트로 '동행'한다. '동행'은 굿네이버스의 후원자와 결연아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굿네이버스USA(대표 오은주)는 전 세계의 빈곤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나누어주기 위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활동 중인 조수아 씨가 찬양콘서트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LA Worship Church와 조이풀교회 찬양콘서트를 시작으로 25일 저녁 미주평안교회, 28일 새벽 에브리데이교회, 29일

라미라다연합감리교회에서 각각 찬양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23일 굿네이버스USA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수아 씨는 "찬양과 간증이 어우러져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 같다"며 "22일 콘서트는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많이들 우셨다"고 전했다.

조수아 씨는 "매월 \$35 이라는 후원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게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아 씨는 3명의 빈곤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23일 굿네이버스USA Office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CCM 가수 조수아 씨

앞서 굿네이버스의 또 다른 나눔대사 소리엘의 찬양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100여명의 빈곤 아동 결연 후원자들이 서약했다.

빈곤 아동 결연은 월 \$35로 후

원자가 아동과 1:1로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돕는 나눔 방법이다. 아동결연 신청 문의: 877-499-9898, sponsorship@gnusa.org

<박삼미 기자>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 1. 기초영어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 전액 무료
-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 3. 어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 5. 유학생 I-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밋 도와 드림)
- 6. 졸업후 직업 추천 헤드림 (유대계 ORT대학)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이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프리웨이에서 가까운 편리한 로케이션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 ▶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 한인 장례매니저의 친절한 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	---	---	--

■ 비전케어 서부지부 창립, 아프리카·중남미 의료선교 위한 네트워크 강화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Vision Care Service, 대표 김동해 원장) 서부지부 창립식이 지난 8월 17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2001년 한국에서 창립된 비전케어는 지난 2010년 4월 14일 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미주법인 창단식을 가진 후 아프리카와 중남미 의료선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서부지부를 창립했다. 김동해 원장은 창립식에서 "비전케어는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해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이슬람과 서방세계(기독교)의 대립이 심각할 때, 안과 의사는 달라트로 선교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사역 동기를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세계에서 1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실명되고, 1억 8천만 명이 빛을 못 보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선교 목표 삼아 무료개안수술로 생명

특히 비전케어는 WHO산하 안과 단체인 IAPB(국제실명 예방구호단체)에 등록, 공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현재의 의료법이나 현지 의사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단체이며, 현지 선교사 지원 사역을 한다. 대개 단기의료선교의 경우 현지 병원 및 의사들과의 협력이나 준비에 있어 미흡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전케어는 현지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며, '의료'와 '선교'라는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가려고 한다. 비전케어 무료개안수술 캠프는 선교지에서 진료와 수술을 통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게 하고 환자들이 선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과 연계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 그럴 때 큰 감사를 드리게 되고 보람을 느낀다. 앞을 못 보는 환자였지만 비전케어 캠프에서 수술을 받고 또한 현지의 선교사를 만나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 결국 우리의 역할은 아주 작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비전케어 의료선교팀들이 돌보는 환자들에 대해 말해 달라.

5초마다 1명이 실명을 하고 있다. 1분마다 어린이 한명이 실명되고 있다. 전 세계에 1억 8천만의 실명자들이 존재한다. 우리 비전케어의 선교 목표는 그 1억 8천만 명 전체이다. 안과 의사에게는 당연히 실명자들이 선교 목표이다. 단 세상의 일반 안과 의사들이 육의 눈만 뜨게 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 비전케어는 영육간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표이



비전케어 대표 김동해 원장. ©지재일 기자

장 심각하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사역이 늘어나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비전케어 서부지부가 창립됐다. 창립 동기는.

비전케어가 한국에 시작됐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은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접근이 보다

능한 재정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병원을 통해 의료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후원, 훈련, 지원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다.

아프리카는 한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워낙 지역이 넓고 환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한 마디.

선교지에서 환자 1명 당 수술 비용은 \$120이다. 돈을 써서 효과적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안과수술은 확실히 치료되는 기회다. 후원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뜰 수 있도록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 기도로도 동참해 주실 수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김동해 원장은...〉

가톨릭의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9년 명동성모안과 개원했으며, 현재 서울 신촌교회(담임 조동천 목사)에 출석하고 있다. 명동성모안과는 비전케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의료진들과 연합하고 있다.

-독자들을 위해 비전케어에 대

〈지재일 기자〉

“세계 1억 8천만 실명자가 우리의 선교목표”

의 빛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래는 김동해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비전케어에 대한 사역 소개.

'Restore sight, share vision'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국제실명구호 NGO단체이다. 쉽게 말하면 안과 의료봉사단체다.

비전케어 의료 선교팀은 안과 의사, 간호사,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현재까지 22개국 36개 도시 이상을 방문해 47,037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6,600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했다. 제3세계 주민들의 실명 원인의 50%에 해당하는 백내장 수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구로서 UN의 WHO, IAPB에도 가입돼 있다.

-무료 개인수술을 하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사역 이야기.

예수님도 앞을 못 보는 자를 다 시 보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만 일으키셨던 기적의 치유 중 하나다. 이 사역을 통해 환자들이 수술하고 다음날 눈 뜨게 하는 순간순간이 은혜로운 순간이다. 오히려 본인보다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다. 특별히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보다가 수술 후 보게 된 경우는 그 가족들이 정말 기뻐한다.

캄보디아에서 비전케어 캠프를 진행할 때 17세 소녀가 부모님과 같이 와서 수술 받았다. 수술 후 돌아갈 때 성경을 쥐어주고

다. 눈을 치료하면서 영혼의 눈도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한다. 환자들 50% 이상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노화나 선천성, 자외선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며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생충에 의한 감염이 많다. 백내장은 심해지기 전에 수술하면 되지만 병원이거나 의사, 의료보험, 치료할 경제적 능력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고 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2만 명당 1명(3천), 100만 명에 한명 꼴이다. 주로 선진국으로 안과 의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 중에 아프리카가 가

쉽다.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전케어 사역도 안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현지 선교의 서포트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창립한 것이다. 올해 4월 동부지역에도 창립을 했으며, 감비아나 가나, 미주 팀과 한국 팀이 같이 하고 있다.

미주지부들은 멕시코, 페루, 칠레, 아프리카 등을 한인교회와 선교단체 나아가 미주 교계와 연합하여 사역할 베이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간 76차례 캠프를 통해 안과 70명, 일반 자원봉사자 1,000명이 동역하고 있다. 이번 비전케어 서부지부(지부장 서영석 장로) 창립에도 LA에 있는 많은 안과 의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비전케어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장기사역은 병원을 설립해 현지에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병원설립 1순위는 파키스탄, 2순위는 몽골, 3순위는 에티오피아다. 병원을 지어 수술이 가



비전케어 서부지부 창립식. ©지재일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대신)직영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미주 대한신학 대학 및 대학원



미주 대한신학 대학 및 대학원은 CALIFORNIA 주 교육국(BPPE)에 등록된 학교로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을 구비한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사명감을 가진 교육기관입니다.

가을학기 수강

가을학기 교수진
정흥이 박사(종말 사상)
고재원 박사(성경 신학)
이동희 박사(기독교 교육학)

제15회 학위 수여식
2010년 9월 28(화) 오전 10시
장소 :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987 S. Gramercy Pl. LA, CA 90019

201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마감 : 2010년 9월 6일 (월)
Orientation : 2010년 9월 9일 (목) 오후 7시
개강일 : 2010년 9월 13일 (월)

모집 및 학위 과정
Th. B(신학사) Th.M(신학 석사)
B.C.M(기독교 음악 학사) D.Min(목회학 박사)
B.M(선교학 학사)
M.Div(교역학 석사)

본교 및 본교단 현황

본교 및 본교단 출신들은 성공적인 목회 및 선교사역, 그리고 신학교 교수 및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사역, 또한 미군 군목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본교 교훈

- 1. 하나님께 충성
2. 타인에게 겸손
3. 자신에게 진실

대한 예수교장로회 미주 총회(대신) 총회장 이의완 박사(김치선 박사 큰 사위)
대한 예수교장로회 역대 총회장 현성초 박사(대한신학 1회졸업)
미주 대한 신학대학 역대명예 총장 최순직 박사(김치선박사 둘째 사위)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총장 류당열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원장 박상희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학장 김호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교목실장 박병구 박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 및 대학원 교수부장 이원갑 목사

교사

3133 W. Pico Bl. 2Fl. #A
L.A., CA 90019
(213)440-0125
E.Mail: daniel42744@gmail.com

또 교회 세워? 건강한 교회라면!



코딤 실행코디 오정택 목사(LA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박상미 기자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창립한 코딤(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이 제 2회 서부지역 컨퍼런스를 개최, 이민목회자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갈 예정이다. 코딤은 이민목회자 5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오는 10월 18일~20일까지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개최한다.

대형교회 중심의 성공적인 이야기보다 소형교회 중심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건강한 이민목회를 하는 멘토 목사들과 서로 대화하며 도전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실행코디 오정택 목사(LA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를 만났다.

“또 교회 세워?” 라는 다소 냉소적이고 강한 주제의 컨퍼런스이다.

이민교회의 현실을 보면 대개 분열이나 갈등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곤 한다. 사실 컨퍼런

스의 주제처럼 ‘뜯’하면 세워지는 게 교회이다. 하지만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이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다. 작은교회 목회자들

맞추어진 여는 세미나처럼 성장에 대한 노하우나 프로그램을 가르치려 하는 컨퍼런스가 아니다. 우선 코딤의 컨퍼런스는 성경에서 추론되어진 건강한 교회와 이민신학적 측면에서 본질부터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민목회를 하면서도 이민자나 이민교회에 대한 성격적이고 신학적인 안목이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민목회는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한다면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민목회를 하는 분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과 이민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한 깨우쳐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그런 시도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코

딤 빌리그래함센터에서 2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게 컨퍼런스를 했었다. 장소나 강사진 모두 다 좋았다. 하지만 컨퍼런스를 마치고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일회에서 그치는 행사위주의 일방적인 기존의 컨퍼런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무엇보다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도울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 되어야 한다는 코딤의 기본 취지에 맞추어 컨퍼런스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원 웨이 아닌 투 웨이 방식의 웨어링이 일어나야 더더욱 그러했다. 또한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코딤의 사역이 목회자들을 오라고 하는 것보다 목회자

어 소형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와 네트워크 되어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고 그런 콘텐츠나 필요가 모아지면 오프라인 컨퍼런스도 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라는 강점을 살려 전문분과별로 이민사역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며, 사역시간 깊은 교제를 나누고, 각종 세미나와 모임들을 통해서 이민사역자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풀타임 사역자나 뜻을 같이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이민교회와 이민

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니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 선교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파급효과가 큰 환경인 것이다.

반대로 이런 축복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에서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만을 바라보는 폐쇄적인 사역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극복된다면 같이 고민도 하고,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코딤 컨퍼런스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나?

이민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는 이민사역자로서 이민목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교회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나도 배우고 상대방도 배우는 상호 의존적이고 도전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회 코딤 이민목회자 서부지역 컨퍼런스는 이민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목회자나 부교역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에 한한다. 등록비는 \$100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등록비, 최근 주보와 함께 보내면 된다.

홈페이지: www.kodim.us
문의: 714-743-3402 (구경모 목사)
(박상미 기자)

실행코디 오정택 목사 “건강한 교회위해 멘토링하는 컨퍼런스”

이나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대화하는 자리다. 건강한 교회라면 얼마든지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이나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하길 바란다.

-목회자들을 위한 많은 컨퍼런스와 세미나 있다. 코딤의 컨퍼런스는 무엇이 다른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초점이

딤의 멘토 목사님들과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세미나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나누는 진행방식이 다른 컨퍼런스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전역 이민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었다. 이번 서부지역만 따로 다소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나?

이민사역의 소명과 비전에 대한 주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애쉬

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크게 서부, 중부, 동부 등으로 나누어 그 지역의 코디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하는 컨퍼런스 말이다.

-코딤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고 이민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는 분들 또한 사역지에 대해 비전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목회자들도 저마다 특기분야가 있다. 전도, 셀그룹, 큐티, 설교 등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이 사역에 평신도들의 참여도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개교회와 담임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와 이민목회자 전체를 섬기는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민목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미국이라는 곳은 여전히 세계를 이끄는 중심국 가이다. 더욱 가주지역은 여러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LV 엘림연합교회 2대 담임 임명진 목사 취임

라스베가스 엘림연합교회 제2대 목사로 임명진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6년 4개월 동안 엘림연합교회 담임으로 교회를 이끌었던 박상철 목사는 한국의 청소년/청년사역을 위해 한국 선교목사로 파송했다.

이취임식에는 라스베가스 교회협의회 회장인 강준수 목사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목사회 회장인 조용철의 목사(갈보리 교회)의 사회, 박은호 목사(영락교회)의 기도와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라스베가스 엘림연합교회 제2대 목사로 취임한 임명진 목사.

조준진 목사(하나교회)의 성경봉독과 서재일 목사(라스베가스 성시화 대표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라스베가스 교회협의회 목회자들과 여러 교회들에서 참석

해 교회는 이취임식에 대한 축하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엘림연합교회는 새로 담임 목사를 초빙하고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

한편 엘림교회는 9월 첫 주 연

한한국학교 개강과 청년선교단체인 에스컴이 개강하고, 10월 4일(월)~6일(수) 높은뜻소의교회 담임 김동호 목사를 초청해 가을성령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제2회 KODIM 이민목회자 서부지역 컨퍼런스 2010

2010. 10.18(월) - 20(수) 2:00 PM

주제 이민교회 세우기, “또 교회 세워?”

2008년 제1회 컨퍼런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의 빌리그래함센터에서 200여명의 이민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 사역자 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제 2010년 제2회 컨퍼런스는 “이민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서부지역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규모로 진행되며, 주 강사들의 전체강의와 코디머들의 분야별 workshop, 그리고 참석하시는 사역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형교회 중심의 성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소형교회 중심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꿈꾸는 사역자와 섬기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장 소: 선한목자장로교회 (Korea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nue, Rowland Heights, California 91748 (L. A. 근교)
Tel: (626) 965-3443 <http://sunhanchurch.com>

대상: 이민교회에서 전임(Full-Time)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부교역자도 해당됨)

접 수: 선착순 50명 (8.31일까지) (www.kodim.us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등록 접수시, pay to "KODIM" check, 최근 주보1장,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등록비: \$100.00 (숙박을 위한 호텔이 필요한 경우, 2인1실 2박에 \$50추가하여 \$150를 보내주세요)

문의 및 접수: 늘푸른선교교회 (구경모 목사, Tel: 714-743-3402)
Mission Community Church (Kodim)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주강사

임형천 목사 (나성영학교)

주강사

박광철 목사 (조이헬로교회)

주강사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분야별 주제 및 강사

"이민교회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창조영성" - 오정택 목사 (L. A.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이민교회 성도를 위한 치유와 상담설교" - 권석균 목사 (아를란타 지구촌교회)

"이민교회 셋팅에서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 최성은 목사 (내쉬빌 다리봉는교회)

"이민자(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 & 신학적 접근" - 김신일 목사 (달라스 연합교회)

"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전략" - 김성찬 목사 (버팔로 세소망장로교회)

"인터넛을 통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 선교 전략" - 김동욱 목사 (민바 한인교회)

"이민신학: 이민목회를 위한 삼위일체론적 접근" - 구경모 목사 (L. A. 늘푸른선교교회)



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주최 : 코딤(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WWW.KODIM.US) - 멘토 그룹 : 한기홍 목사, 정인수 목사, 박광철 목사, 고태형 목사
- 코디머(전문위원) : 오정택 목사, 최성은 목사, 권석균 목사, 구경모 목사, 김성찬 목사, 김신일 목사, 신현철 목사, 박연담 목사, 김동욱 목사

영광빛복음교회 22일 신유집회 열려



신유대성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는 우대권 목사 ©박상미 기자

영광빛복음교회(담임 우대권 목사) 신유대성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주일) 열린 두 번째 신유대성회에서는 눈 질환,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코 신경 마비, 백내장, 구강질환자 등이 우대권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코 신경 마비를 앓고 있던 한 목회자는 “기도를 받으니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강하게 느

꼈다”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우대권 목사는 “성회를 통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우 목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홀히 여기시면 치유해 주신다”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을 믿고 기

도하자”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우대권 목사는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영광빛복음교회의 신유대성회는 오는 29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소: 1200 W. Alvarez Ave. Orange, CA92868 상담: 714-833-2568 (박상미 기자)



좋은이웃선교회 난타팀은 지난 8월 15일 첫 연습을 시작하고 창단을 앞두고 있다. ©지재일 기자

좋은이웃선교회 장애인 난타팀 창단 앞뒤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 좋은이웃선교회(오동근 지도 목사, 회장 김현구 장로)는 음악 치료를 위해 난타팀 창단을 앞두고 있다. 난타팀은 현재 LAPD 밴

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홍 집사가 이끌고 있다. 홍 집사는 1960년대 유행기 목사와 미군부대내 밴드 멤버로 활동하며 50년 이상 드러머로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제임스홍 집사는 “LA지역 장애인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하고 음악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타팀은 향후 지역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양로원, 병원, 장애인 센터 등 순회 연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순회 연주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난타팀은 핑가리, 드럼 등 악기 후원을 받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후 1시에 연습한다.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김현구 장로 213-389-9152 (지재일 기자)

[새벽강단 8] 남가주리디머교회 새벽예배

회복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 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결 후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땅을 정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합니다. 이 땅은 후람에게는 쓸모없는 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게는 필요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겠습니다.

날 많은 크리스천들 구분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주요절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로소 성전 건축이 결점 없이 끝이 난 것입니다(16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대외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주변 정비한 후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 드러내자’

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남가주리디머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새벽예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마치고 삼대절기를 회복한 장면을 살펴보았다. 우리 삶이 어떤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문: 역대하 8장)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정치 종교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성전과 왕국의 건국을 마치고 2

솔로몬이 여러 지역을 다스리면서 필요한 지역에 성읍들을 모두 건축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본문 3절~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삼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11절을 보면 건축을 다 끝냈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이방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이자 그 당시 강대국에 속한 애굽 왕의 딸이었지만 이방여인이기에 거룩한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하다보니 어느덧 교회 건물이나 교회 건축에 목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해서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상미 기자)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이단대책 세미나 개최



한인교회내 이단 침투가 심각한 가운데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LA한인침례교회에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선희 목사는 이단 개요 및 서론과 신천지, 안식교, 구원파, 다락방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경계할 것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한선희 목사는 “성도들이 사회적, 경제적 불안 요소, 호기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리스도 안에 건전한 가정생활과 성경말씀 묵상, 충실한 교회 봉사활동에 힘써 이단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지재일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8월 30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트)

스페인, 예배 장소 놓고 기독교-이슬람 갈등

현지 무슬림들, 가톨릭 대성당에서 예배 드릴 권리 주장

스페인에서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코르도바의 명소로 긴 세월 자리매김해 온 코르도바 대성당은 8세기경 무어족의 침입 때 모스크로 세워졌으나, 13세기 페르디난드 3세가 코르도바를 탈환한 이래 가톨릭의 대성당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 때부터 코르도바 대성당 내에서 가톨릭 외에 타 종교 의식이 진행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무슬림들이 자신들도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현지 가톨릭 교계에 요구하면서부터 갈

등은 시작됐다. 가톨릭계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데메트리오 페르난데즈 코르도바 주교는 유로파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웃과 나누어야 할 것과 나누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며 "자기의 아내를 이웃과 나누는 이는 없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나누는 것은 그의 아내를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중세 시대 최대 이슬람 도시 중 하나였던 코르도바는 현재는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의 3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비록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한데 어울려 살아 왔던 이 지역 타 종교

인들 간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그러나 페르난데즈 주교는 "타 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지, 예배 드릴 장소를 같이 쓴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 가톨릭 교인들뿐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란 걸 잘 알 것이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톨릭 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성당에서 예배 드릴 권리를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무슬림들 중 한 명인 만수르 에스쿠데로는 대성당이 기독교인, 무슬림, 유

대교인 모두에게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개방되기 원한다며, 이는 "관용의 패러다임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고 이유를 내세웠다.

스페인은 전체 인구의 약 90%가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호세 사파테로 총리의 사회주의 정권 집권 이래 정부와 가톨릭 간의 결속력은 점차 떨어지고 동성애, 낙태 등 분야에서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내 무슬림 인구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타 종교로의 혜택 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이슬람의 입지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지적한 바 있다.

〈손현정 기자〉

그라운드 제로 닳은꼴 애틀랜타의 '조용한 전쟁'



김성구 목사 사택(사)을 제외한 약 13에이커의 땅이 무슬림 모스크 건설부지로 매입된 상태.

뉴욕 그라운드 제로 근처 모스크 건설과 관련 미국인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는 조용히 무슬림 모스크 건설을 막기 위한 싸움이 9년째 진행 중이다. 바로 로렌스빌 Five Forks 지역에 교회 건물 및 사택을 갖고 있는 김성구 목사(한인연합침례교회).

김 목사는 이번 뉴욕 모스크 건설에 관련해, "미국의 중

이 들어 포기하려고 주변 교회에 팔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다. "이 지역에 벌써 3천여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스크가 건립되면 1차선인 지역 도로가 해프기 전부터 해지기 전까지 기도하는 무슬림들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겁니다." 김 목사는 "이 곳에 왜 모스크를 꼭 건설해야 하나?"고 관련 무슬림에게 직접 물

9년째 모스크 건립 예정지 지키는 김성구 목사 "전국 무슬림 선교 네트워크 구축할 것"

심부에 모스크가 건립되면 이슬람이 세계적인 종교라고 선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확보하는 셈"이라며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선전용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3년 애틀랜타 지역 신문 AJC에도 보도된 바 있는 Five Forks 모스크 및 이슬람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슬람에 관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뉴욕 그라운드 제로 모스크 사안과 닮아있다.

김 목사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사택'부지를 매입해 들어왔지만, 모스크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팔지 않고 버려온 것이 벌써 9년이다. 사정이 여의지 않아 빛도 많이 늘었다. 최근에는 너무 힘

은 적이 있다고 했다. 돌아온 대답은 설계도가 이미 제작된 Five Forks 지역 모스크는 김 목사의 사택을 제외하고 건립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재산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목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무슬림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늘 이삭이 승리할 거야 라고 안이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이삭이 승리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권나라 기자〉

미국인 다수, 오바마 모스크 관련 발언 비난

미국인 다수가 9.11 현장 인근에 모스크를 건립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37%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서도 32%는 매우 강한 반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한편 41%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특정한 견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1,0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백악관에 무슬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진 이프타(라마단 기간 하루의 금식)

마무리하며 저녁에 갖는 식사) 만찬에서 "이 나라의 무슬림들은 로워 맨하탄에 있는 그들의 사유지에 그들의 모스크를 세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는 미국이며, 종교 자유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모스크를 '어디든' 세울 수 있는 무슬림들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보수층 반발이 거세게 일자 그는 자신의 발언이 건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종교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미국민들은

그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그가 9.11 테러로 숨진 3천여 명과 그 유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어야 했으며, 높은 모스크 건립 반대 여론을 고려했어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민의 일부인 무슬림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확인해 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한 것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연설문 작성 담당자인 마이클 거슨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모스크 건립안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입장차가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이번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십대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5가지 진짜 이유

통상적으로 십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들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십대들은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Teens don't show up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

2.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 하지 않기에 십대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Teens don't make church a priority because their parents don't make it a priority.)

3.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에 십대들은 더는 교회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Teens are very connected to each other now and don't need church to hook up anymore.)

4.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이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Unchurched teens

se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urch kids and everyone else.)

5. 작은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관계성이 없는 일들에 열심인 교회들에 많은 십대들이 질려있다. (Many teens get impatient with churches that major on the minors and try too hard to seem relevant.)

출처: Shane Raynor, Faith Experience 옮긴이: 김영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선교단체장 초청 이슬람 상황화 포럼

“상황화의 목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등에서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화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 방향 제시가 중요한 때다. 이런 가운데 선교신학자,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이슬람 선교와 상황화 이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금천양문교회(이훈찬 목사)에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한국선교신학회 회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원선교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차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이슬람 선교와 상황화 이론(내부자 운동과 비판적 상황화)'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발제 및 논찬,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KWMA가 공동주최했다.

'상황화 신학', '복음과 상황화' 등 상황화 관련 저서와 많은 논문을 발표해 온 정흥호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학)는 이날 선교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상황화 과정'을 위한 '방향성 진단'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사실상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상황화와 관련된 문제는 늘 상존해 왔다"며 "시대적 변화와 한국선교의 급속한 성장, 1970년대 이후 신학적 입장 등에 따라 상황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는 한국선교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고 말했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WCC를 중심으로 선교학자와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19세기 초 선교학자 기간만 해도 선교사가 살아온 본국의 교회 건축양식, 예배 복장, 예배 의식, 악기, 찬송가, 행정조직 등이 선교지에 그대로 수출됐고 현지인들도 이를 특별한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1890년대 후반 헨리 벤, 루푸스 앤더슨, 톨랜드 앨런 등이 '자립, 자전, 자치'의 토착적 교회개념을 펼쳤으나 훨씬 뒤인 1948년

WCC가 형성되면서부터 복음 전파와 상황화의 문제들이 논의된 것이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학자, 교육학자들은 제 2, 3세계에서 복음 전파와 함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용할지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제 2, 3세계의 신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WCC 내에 '신학교육기금'(TEF)을 조성했다. 상황화란 용어는 공으로 TEF의 '상황 속의 사역'(1972)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정 교수는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에서의 상황화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다"며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서 상황화는 복음 전파와 함께 외형적인 사회 변화까지도 의도하고 있는 반면,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는 복음과 문화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복음 전파에 우선권을 두고 사회적 변화는 복음으로 인한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1890년경 서구 내에서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과 고등교육을 받은 식민지 민족 지도자의 증가, 간접통치에 따른 식민지 사회 조직의 토착 형태 연구로 인해 문화적 다원주의

의 시대로 바뀌면서 문화인류학자, 사회학자, 선교학자,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적합한 패러다임을 찾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사회구조와 문화형태 속에서 어떻게 복음과 신학적 문제들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게 됐는데 폴 히버트는 이와 관련해 △서구의 옷을 입은 복음의 일방적 전달을 피하고 △참된 제자도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왕국 실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깊이 있는 학문과 바른 신학의 적용을 찾고 △복음의 절대성 보존과 동시에 적절한 상황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상황화 과정에서 신학적 견해를 검토할 때 우선 성경에 기초해서 나온 견해인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진정 성경의 인도를 구하는지, 견해에 대한 같은 기독교 공동체의 비판에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가 검토해야 한다고 폴 히버트는 말했다"며 "정당한 상황화를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처음부터 각 문화 속의 교회의 권리, 책임, 역사적 상황에 대해 인식해야



▲정흥호 교수(맨 오른쪽)가 '상황화 과정을 위한 방향성 진단'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훈태 교수, 안희열 교수, 정흥호 교수 ©이지희 기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상황화 신학의 목표는 "현대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 신학을 실현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연애, 일부다처제, 기독교의 독특성을 타협하면서까지 타종교와 접촉점을 찾으려는 시도 등은 수용자의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복음을 해석하여 혼합주의로 흘러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바른 상황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상황화가 이미 끝난 '경교'(중국에 전래된 기독교 형태의 종교, 당나라 A.D. 618-907)의 정착과 변성, 소멸과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케네스 라토텡, 사무엘 마펏의 분석을 인용하며 "경교는 정착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왜곡 혹은 생략하며 혼합주의 양상이 나타났고, 외국인의 교회로만 존재했으며 황실의 보호와 후원에 의존하여 황실 붕괴와 함께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달자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전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대제하거나 제거하면서 수용자의 문화로부터만 해석, 적용하려는 모습은 위험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상황화의 과정에 대해 "성경번역을 포함하여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 전도와 교회개혁, 교육 및 예배의 형태 등 모든 분야가 주님의 지상 최대의 위임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접근하는 상황화는 결국 어느 문

화나 사회 속에서도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부분적인 신학' 또는 '신학적 지엽주의'에 머물러 온전한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전달하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학이 다른 사회적인 학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텍스트'로서의 권위가 보존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초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훈태 교수(백석대 언론선교학)는 이날 논찬에서 "상황화 신학의 권위자인 정흥호 교수의 글이 선교와 목회, 학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경교의 사례뿐 아니라 최근 선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화 사례와 오늘날 상황화 선교는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한국교회가 매주 드리는 '헛된 예배'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주승중 교수가 소위 '헛된 예배' 다섯 가지를 꼽았다. 최근 경기도 양평 십자가기도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예배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

은 바로 죄인을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총에 있다.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이것은 동기의 문제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는 않는가. 혹 헌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바치니까 하면서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드리고 있지 않은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구역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 번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런 마음으로 나아와 일치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영역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깨우쳐지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 왜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는가. 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그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는가. (김진영 기자)

주승중 교수, 전국교역자 영성수련회서 지적

열렸던 제13회 전국교역자 영성수련회'를 통해서다. 주 교수의 발제 내용을 요약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오늘날 한국의

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 현장에서 이런 감격스러운 응답의 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칼라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미윌리콘도상가2층
윌셔 + 웨스턴 코너

“보수와 진보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냐의 차이”

[한국신학의 보수와 진보①] 박형용 박사

정치, 경제, 문화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갈등의 대부분은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일어난다. 또한 이것은 남북 대치 국면의 한반도 특성상, 흔히 ‘우’와 ‘좌’의 정치적 입장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한국교회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논란이 첨예한 사회적 현안에서 한국교회는 자주 양분된다. 사학법 개정과 북한인권 등에서 그랬고 최근에는 소위 4대강과 한상렬 목사 문제가 구설수에 올랐다. 교회 내부적으로 이른바 ‘사회참여’ 여부가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다.

신학계에도 이 경계가 존재한다. 보수·복음주의 신학과 진보·자유주의 신학이 이 경계 사이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것은 각 교단의 신학적 배경으로 작용하며 모든 교회 활동에 고유의 ‘색깔’을 부여한다. 외부로 표출된 교회의 목소리가 지류(支流)라면 그 수원(水源)은 이 두 얼굴의 신학이다.

‘한국신학의 보수와 진보’는 각 진영에 속한 신학자들에게 그 신학의 정체성을 묻는 기획 인터뷰다. 먼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형용 박사에게 보수 신학을 물었다. 개념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수·복음주의 신학은 보수신학으로, 진보·자유주의 신학은 진보신학으로 통칭했다.

-보수신학의 개념부터 알고 싶다.

“넓은 개념이다. 성경을 보는 관점, 구원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면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일단 보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듯, 전통적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또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입장이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교리들을 지키자는 것이 바로 보수신학, 보수주의다.”

-진보신학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다. 보수신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구원과 죄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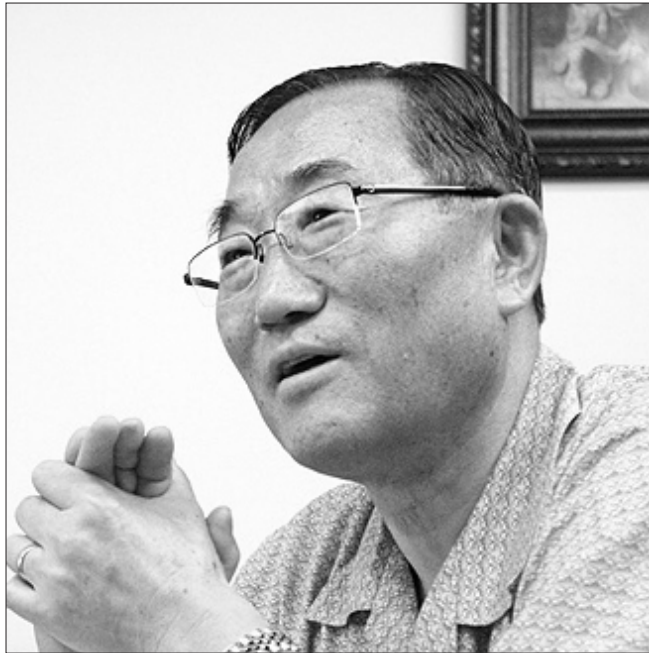
롯한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 사고의 전제다. 그러나 진보신학은 그 이면에 인본주의가 개입된다.”

-보수의 다른 말인 ‘수구(守舊)’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따른다.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변하지 않는 규범이 존재한다. 규범이

금까지 그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 과정을 보면 가히 눈이 부실 정도다. 모든 것이 창조적 발상으로 가득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나? 아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보수신학이 창조적 발상에 폐



박형용 박사는 매우 낙천적인 사람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음에도 그의 유쾌함은 인터뷰 분위기를 환기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노학자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 송경호 기자

흔들리면 그것은 이미 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신학은 이 규범을 지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론과 교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때론 약점이 되기도 한다. 유연하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게 보수 비판에 있어 주를 이룬다. 한편에선 이론과 교리를 고수하면서도 실상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수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물론 진보신학에도 약점이 있다. 생활과 상황에 치우친 나머지 교리와 원칙에 대한 민감함이 덜하다. 개인적으로, 약점을 보완할 여지에 있어 그나마 보수가 진보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본다. 확고한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신학은 창조적 발상에 있어 다소 폐쇄적이지 않은가.

“보수신학자,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한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지

쇄적이라는 생각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규범과 원칙 안에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생각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경은 창조적인 것들로 넘쳐난다. 사실 이런 비판의 이면에는 모든 상황에서 규범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행태가 숨어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짓는 보수신학의 그것이 창조적 발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수신학을 폐쇄적이라고 하는 건, 유독 민감한 주제에 있어 그 논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기령 종말론과 같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구체적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장마다 예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날을 모르는게 맞다. 만약 누군가 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지겠나. 내가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날을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보수신학은 종말에 벌어질 현상에 대해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진보와 손 잡을 수도, 등 돌릴 수도 있다”

-보수신학이 교단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그 정파성을 드러낼 때도 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비근한 예로 기독교 대통령이 뽑히면 그의 국정운영에 대한 교단들의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직책이기에 대통령이 속한 교단이 그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장로교이고, 이들은 보수신학의 일종인 개혁신학을 지지한다. 그러나 예배배례지 기타 교회 활동에는 오순절적 요소가 많다. 개혁신학이 외면 당한 것인가.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적 영향이 한국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장로교회가 개혁신학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혁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오순절 교회가 채워줬다고 보는 게 옳다. 개혁신학이 교회의 예배 등에서 거룩성과 예전적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신앙인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에 소홀했다. 이것은 개혁신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일면, 연약한 인간의 부족한 때문이다. 어느 시대건 한 교리적인 입장이 신앙인들의 삶에 적용돼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난다.”

-진보신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교집합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규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손을 잡을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김진영 기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 옆에 누가 있는가

최근故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인 이재찬 씨가 자살하면서 또다시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더구나 몇해 전부터는 연예인들에 이어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인식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곧 다가오는 가을은 자살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 주장했다. “어려움 없이 자살수욕 위기는 더욱 힘든 현실로 다가와” 이어 유영권 교수는 “자살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징조를 남긴다”며 “이 말은 우리의 관심으로 80% 이상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는 입

처음 열린 자살예방학교…

“자살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이같은 흐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간 지구촌교회(담임 이동원 목사) 분당성전 예배실에서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교수) 주관으로 목회자 및 상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자살 예방학교’가 열렸다.

“자살 담론 형성으로 사회 전반적인 예방 분위기 형성될”

첫 강의에 나선 이영문 교수는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가족과 사회,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자살 시도자는 그 성공자의 10-20배에 달해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살은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자살 시도자들의 전조(前兆) 현상들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살은 단순히 정신의학이나 정신보건의 테두리에 머물러야 할 주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없다”며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자살에 대한 담론(談論) 형성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자”

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자살을 안 할 수 있다”며 “한 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결국 자살하고 만다는 생각도, 국민의 해결 가능성이 있을 때 자살 의지가 소진되는 점에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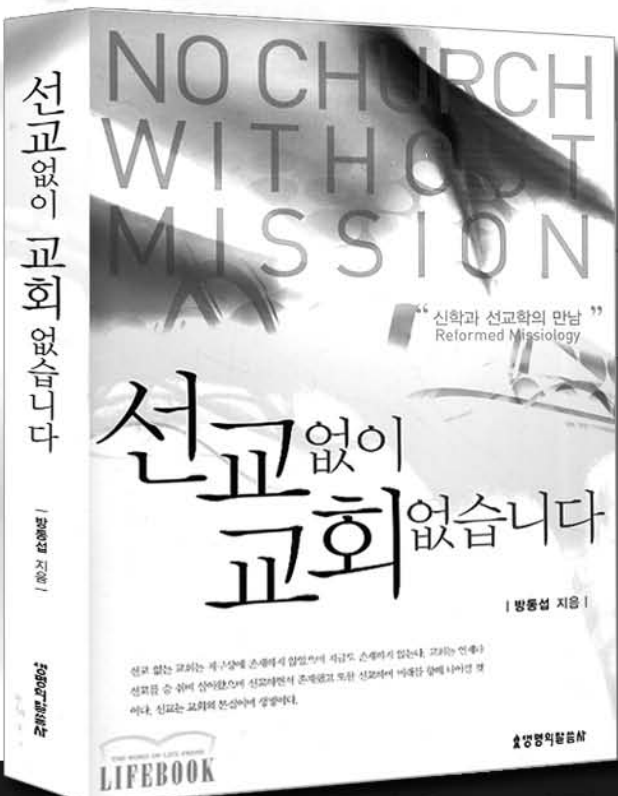
“자살 유가족들도 피해자… 아픔 나눌 곳 마련해 줘야”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 강의한 하상훈 원장은 “자살자 유가족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용기를 갖고 지역사회에 복귀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살 유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나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종교기관이나 사회봉사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자살 유가족들이 자조모임에서 충격과 슬픔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가이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방동섭 목사의 화제의 신간!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이 책은 강추가 아니라 강강추를 하고 싶은 책이다.”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 “선교의 종교개혁적 저작이라고 불러서 지나침이 없다.” - 유관지 박사(북한교회연구원(NCRC) 원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총신대 선교대학원 교수)
-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 김학유 박사(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있는 저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신경규 박사(고신대학교 교수)
-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김홍만 박사(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 오준문 선교사(컴보디아 선교사)
-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늘 길을 닦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이길수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 신종철 선교사(GMC 지구촌선교공동체 대표)

● 구입처: LA기독교서점, 미주성산교회 T.213) 975-1111, E-mail: dongsubbang@gmail.co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p>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p>	 <p>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년인양회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p>	 <p>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군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p>	 <p>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원 목사 주일예배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p>	 <p>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p>	 <p>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승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 10:30 금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p>
 <p>남가주중신교회 담임: 손병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p>	 <p>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p>	 <p>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박흥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p>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p>	 <p>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11: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p>	 <p>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전 1:30 주일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p>	 <p>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p>
 <p>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p>	 <p>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p>
 <p>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길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p>	 <p>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p>	 <p>새창조교회 담임: 최항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강제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p>
 <p>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p>	 <p>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p>	 <p>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p>	 <p>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p>
 <p>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현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p>	 <p>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p>	 <p>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p>	 <p>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p>
 <p>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 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p>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p>	 <p>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순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p>	 <p>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p>	 <p>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p>	 <p>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p>
 <p>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2:30 (토) 오전 6:00 청년대학부(금) 오후 7:30 금요 성경예배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p>	 <p>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p>	 <p>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위업콘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p>	 <p>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p>

한인 주도 다민족 영어교회 개척 코 앞

지난 2008년 미국장로교(PCUSA) 남대서양대회에서 통과된 '애틀랜타 다민족 영어 교회' 개척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교단지원금으로 25만 불이 확보됐고, 2세 목

아 하고, 백인이나 다른 인종도 될 수 있지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PCUSA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을 갖춘 목회자로서, 다문화(mul-

은 다민족 영어권 회중을 담기 원한다"며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국, 유럽 등지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이 각자 언어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3세, 4세 등을 거치며 현재 영어권 회

통해 개척 후원비를 모금하고 있다.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골프 대회에서 모금된 기금도 전액 교회 개척 기금마련을 위해 기부된다. 다문화 영어 교회에 청빙 되는 목회자는 교단 내 개척교회선교위원회(New Church Development)에서 지원하는 미국목회자 및 한인 목회자의 멘토링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목회 노하우 등을 공유하게 된다.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있는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문화 영어교회의 롤 모델이 세워질지 주목된다.

<권나라 기자>

2세 목회자 찾고 있어...다민족교회 롤모델 될지 주목

회자가 부임하면 5년 정도 재정적, 자원적 지원을 보장한다. 현재 남은 단계는 '비전 있는' 2세 목회자를 찾는 것 뿐. 담임 목사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한국어 또는 다른 언어를 쓸 줄 알아

tical) 교회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자다. PCUSA 내 다민족 영어 교회 개척 건을 추진했던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는 한인 2세들과 많

중으로 합쳐졌다. 아시아인들의 이민역사가 깊어지는 만큼 영어권 다민족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 개척 지원금을 위해 남대서양한인노회 남선교회 회원들도 지속적인 모임을

“다음 세대 생각지 않는 지도력 깨야...”



(왼쪽부터)박우신 목사(프라이미스교회 부목사), 멘도자 목사(스텝), 김남수 목사, 김승호 전도사(스텝), 고성진 목사(프라이미스교회 부목사)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2차 대회, 오는 9월 2일-5일

4-14세까지의 세계 어린이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 운동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2차 대회(공식 명칭: 4/14 Window Global Initiative)가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프라이미스교회(순복음뉴욕교회, 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20일 이번 대회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김남수 목사는 “올해 대회에 90개국에서 823명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슬람과 공산주의 세력으로 기독교가 위축되는 현실 가운데 장기적 선교 차원에서 어린이를 키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않는 지도력을 깨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고 전했다. 김남수 목사는 “전 세계 18억 5천 만 명의 4-14세 어린이를 10년 안에 전도하면 20년 후 그들이 성인이 되어 그 나라

의 지도자로 세워져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쓰게 된다”며 어린이 전도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이나 빈민을 돕는 직업학교 등 교육 선교와 부흥회 등을 통해 전술적으로 하자고 전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니만큼 4/14 운동은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이 앞서서 일

어려야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 사역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작년 대회에서 한발 나아가 어린이 사역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다. 대회 공식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와 남미 지역 참석자는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8회의 전체 모임과 각 분야의 전문가가 1년간 준비한 자료가 제시될 13개 트랙은 “어린이 사역을 정치·경제·문화·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을 주게 될 것이다”고 김 목사는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전통인 새벽예배도 3일과 4일 공식 일정에 포함됐다.

<오상아 기자>

“듣는 것은 지겹다, 복음을 보여달라” 호소

타주에서도 참가... 조지아침례교여성 선교컨퍼런스 성황

여성들의 선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지아침례교 여성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한 '여성 선교 컨퍼런스'가 21일(토) 열려 조지아 지역 여성도들의 선교열정을 부추겼다.

슈카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에서 총 6시간 동안 진행된 모임에는 전체 강의 2개, 선택 강의 9개가 준비 돼 다양한 선교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조지아 뿐 아니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집회 참여를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는 열정을 보였다.

첫 강의를 맡은 김성혜 강사(National Women's Missionary Union)는 “제가 처음 이민 온 37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선교 대상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 하고 선교하는 국가로 바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고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 하는 것”이라며 남침례교단에서 제공하는 선교사 훈련 및 은퇴 후 생활보장 프로그램 등을 언



조지아침례교 여성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한 '여성 선교 컨퍼런스'가 21일(토) 열렸다.

급하며 선교 사역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침례교는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기여도와 존중도가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대표적인 예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 교단으로 보내는 선교헌금 '라티문'의 명칭이 바로 여성 선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고, 여성들의 선교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선교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후 클락스톤 지역 난민선교로 잘 알려진 김로리 강사(애틀랜타한인침례교회 청소년 사역 담당)는 “힌두교 가정을 찾아가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하면 차도 태워주면서 섬겼다. 어느 날은 90도가 넘도록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변 이웃에게도 주말마다 Korean Christian 천사들이 다녀간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클락스톤 지역에서 생긴 Korean Christian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 24세 청년이 먼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클락스톤 지역은 현재 주민의 80%가 난민이며, 학생들의 주요 사용언어만 90개로 다양한 분쟁 국가에서 오갈 데 없는 이들이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계 난민수용소에 거주하는 인구는 천 오백만명, 이 가운데 2010년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는 총 8만이며, 이중 애틀랜타

에 오는 난민 만해도 5천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김로리 강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은 지겹다며, 복음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물론 단기선교를 다녀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강의가 끝난 후 점심식사를 한 참석자들은 9개의 선택 강연 스케줄을 소화했다.

다양한 선택강연 중 2개만을 골라 듣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석자들의 아쉬움도 컸는데, '이 중에 2개 밖에 못 듣는 거지? 다 듣고 싶는데...'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참석자들도 보이는 등 컨퍼런스 참여열정이 돋보였다.

<권나라 기자>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나 개강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원장 심현찬 목사)이 8월 24일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나'를 시작했다.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는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한 청교도 신학의 후예로서 탁월한 설교와 신학적 업적으로 대부흥을 주도했다.

원장 심현찬 목사는 “에드워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 '복음과 지성이 균형잡힌 명품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는 11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

<조요한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영광교회

요즈음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갈팡지팡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아니면 유다나라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모든 군대장관들과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화려한 신앙 고백입니까? 멋있죠, 신앙고백점수 A 학점이지요.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말이 화려하다고 신앙생활이 꼭 좋은 것만 아니지요. 결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답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짱통고백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에

서 말로만 백점 맞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삶은 빵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 땅으로 남아라’ 말씀하신다 하니 그들 모두가 이미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혹은 시나 하나님께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뜻에 맞게끔 설교하지 않으니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잡아 애굽 땅으로 데려 갑니다.

간단하지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 백성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요, 그들의 소원대로 말하면 참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너희가 마음을 속였느니라’(렘 42:20) 사람은 속였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이민목회하면서 주변의 목회하시는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안수집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해요. “화

예레미야가 그들의 뜻에 애굽으로 가는 것) 맞게 설교하지 않으니(너희들은 유대에 남아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잡아 애굽으로 데려 갑니다. 백성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요. 그들의 소원대로 말하면 참선지자라고 합니다.

현대 목회가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전하기 보다는 내 생각을 백성들이 듣기 좋은 행복, 평안 축복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너희가 마음을 속였느니라”(렘42:20)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상대방에게 속고 마귀에 속았던 죄악들을 진실로 회개하였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속인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아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속인 것, 자

세련된 고백보다 작은 순종이 더 아름답다

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다 드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

왜 그럴까요. 친구들의 목회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로가 돼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안수 집사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장로 되려고 부부가 가면을 쓴 것입니다. 거짓고백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로만 백점 맞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삶은 빵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에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 땅으로 남아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이미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혹은 시나 하나님께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미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시나 한 것입니다.

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악을 더욱 회개하였습니. 회개하면서 저에게 새벽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이 자물통으로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물통으로 내 마음을 닫아 놓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자물통을 열어야 영적으로 삽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계3:20) 자물통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한 주간 화려하고 잘나가는 말보다 내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고 회개하십시오. 세련된 거짓 고백보다 평범한 순종이 백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작은 순종의 결단으로 한 발자국, 한발자국씩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가 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첫 번째 반응은 “Why me?” 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지... 별의별 생각과 원망과 근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기에, 고난에 대해서, 그동안 인생역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밤을 새고도 모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

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필수적인 유기체가 아주 극소한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허리케인으로 미국 중서부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허리케인과 계절풍이 없으면 기후 조건의 미묘한 균형이 뒤집어지고, 살인적인 가뭄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통증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에서 문동병, 나병이라 일컫는 병을 치료하는 선구자가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병치료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폴 브랜드의 나병치료로 인해, 나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도 했고, 나병환자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치료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자체로 인해서 손과 발이 없어지고, 코와 눈이 뭉그러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병의 치명적인 증상은 통증 감각의 상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

약하지 않은 고난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새 가족 심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신지 2주도 안된 분이셨는데, 아침 9시30분에 심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때문에 30분 앞당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심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만났는데 그 분이 저를 붙잡고 간증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심방시간을 앞당겨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가시고 바로 부엌 찬장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데, 그게 무슨 간증이세요?” 그분의 해석이기가 막힙니다. “심방시간을 앞당기지 않았으면 예배 중에 찬장이 떨어졌을 것이고 저도 민망하고 목사님도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방시간을 앞당기게 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으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 같으면 “고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인생 보호막

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충고나 조언을 하려고 하다가는 음을 괴롭힌 친구들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난은 고난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고난은 질병을 생각해보십시오. 질병은 왜 존재하는가? 단순히 죄의 결과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체 세균의 99%가 인간에게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산균만 좋은 세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식물은 산소를 배출할 수 없고, 동물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폴 브랜드의 말에 따르면, 질

병의 치명적인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어느 날 창고 문을 열려는데 녹이 슬어서 잘 열리지 않아서 애를 쓰는데 한 어린남자아이아가 오더니 “그것도 못 여세요?”하면서 한 번에 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손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보이기까지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웃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폴 브랜드 박사는 왜 나병 환자들의 손이 점점 짧아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면서 폴 브랜드 박사는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해석하지 못한 고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건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유

회를 옮기자마자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생기나?” 하면서 시험당할 법도 한데, 그 새 가족은 짜증날 법한 일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한 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약5:13)” 고난은 기도할 제목입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시험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몸의 자세가 참으로 좋은 것은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임의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임의로 원망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하세요. 고난을 통한 축복이 분명히 예비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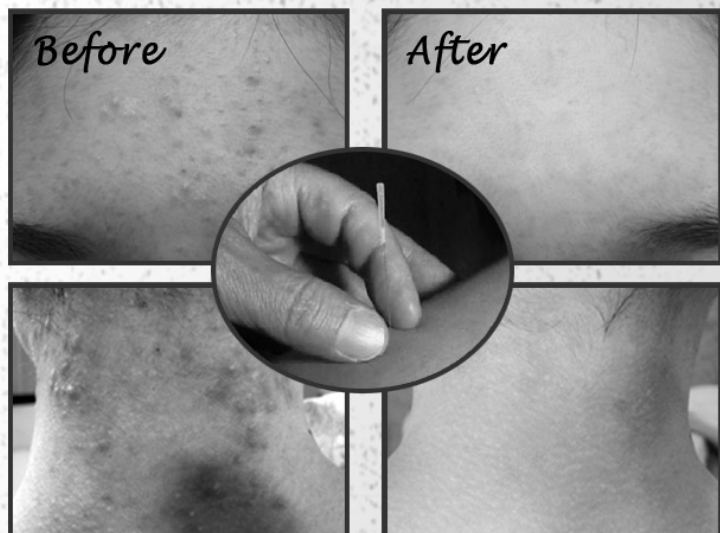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물 2층)



T.213-380-0853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이 시대는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원동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에

너지...바로 열정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랠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 1803~1882)은 "역사상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영성이 갖춰져야 할 기본이라면 이것을 이뤄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이 있다면 열정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열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 무슨 말입니까?

기시키는 말입니다. 안소니 로빈스의 《무한능력(Unlimited Power)》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결핍감을 느끼고, 이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인

불'이란 책이 있습니다. 난로라는 틀은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형식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난로 속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불이 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스피켄 목사님은 "나에게 12명의

은 생존(Survive)하기 위해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흥(Revival)시키는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크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일들입니다.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일을 만드는 원동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취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덕목입니다.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서도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열정가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11)"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전서 3:13)" 우리가 신앙에 열정을 쏟아 부르면, 결코 망할 수가 없음을 상

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부모 또는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성공해서 위대해질 수 없다." 그만큼 열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열정이 가치 있는 재산중의 재산임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난로 속의

열심 있는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나를 어느 지역이든지 내려 놓아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일 할 것이다. 마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 전체를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운외창천(雲外彰天)이라는 말이 있다. 저 구름 뒤에는 맑은 하늘이 있다는 말이다. 언제가 일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비행에는 무리가 없었다.

노련한 조종사 덕분에 비행기는 무사히 하늘을 날게 되었고 조금 후에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을 소개해주는 것이었다. 구름 아래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구름 위에서는 맑은 하늘과 강렬한 태양 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당장 먹구름이 몰려와 온통 대지를 적셔 버리지만 구름

의 고난 뒤에는 맑은 기쁨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기쁨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름 아래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흔히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두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첫 번째 관문 '해방의 관문'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 모든 성도는 원인 모를 근심에서 해방되는 시기를 맞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구름을 허락하신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 고난은 전에 주신 기쁨의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허락된 구름이다. 저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그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맑은 기쁨의 세계가 마련되어 있다.

운외창천의 역설

된다. 구원의 은총 때문에 죄로부터 오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시작할 때 성도는 비로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불들려고 했던 것들이 소용없어지게 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한다. 알 수 없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던 생활에서 기쁨의 활력을 찾는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마지막으로 고난의 관문도 통과하게 된다. 원인 모를 기쁨의 시간이 길어질 때 성도는 그 기쁨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

고난은 구름이다. 구름을 뚫고 가는 자와 구름에 주눅 들어 인생의 비행기를 띄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구름 저편에 있는 맑은 하늘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현재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운외창천의 비밀을 맞보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구름은 부딪혀서 깨지고 상하는 관문이 아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구름을 부수어 버릴 도구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름은 어떤 도구로 부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름 저편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역설이다.

옥재인 칼럼



재인옥 변호사
재인옥합동법률사무실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역인 비자인 E-1 비자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지속되는 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미국과 조약 체결 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상호 무역 또는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된 나라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와 투자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에 회사의 주식은 한국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E-1 비자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접수 하거나 무비자가 아닌 보통 비자로 미국에 입국 시에 이민국을 통하여 신분 변경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한 체류 신분 변경 시에는 2년의 기간을 승인 받게 되며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보통 5년이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된다.

E-1 비자는 무역인이나 투자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립하려는 회사의 직원이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회사에서 근무 해야 하고 미국회사에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

미국 내에 설립된 신청 회사의 총 교역량 중에서 50% 이상의 거래가 미국과 이루어 져야 한다.

무역은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 업무의 교환이나 매매도 될 수 있다.

무역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교환, 구입,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이 발생되어야 한다.

무역 비자

를 맡는 간부 이어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경력 증명서와 관련 업무의 인가증 등 최대한 신청자가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1비자 신청자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무역의 양이 실체적이고 상당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역의 분량이나 업무 거래의 빈번도와 무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의 거래가 잦고 오래 지속된다면 '상당한 무역 거래'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E-1 로의 신분 변경 또는 비자 신청은 회사에 관련된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한다. 장점은 E-2 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있는 한 무한정 연기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하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신청하므로 별도의 노동청 허가증의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EB-1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제도 중의 하나이다.

전화: 213-738-8989 (Law Offices of Jane Oak & Associates, PC)

주소: 3435 Wilshire Boulevard, Suite 2470 LA, CA 90010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인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여름학기 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자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인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40 한달 온가족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0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0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교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p>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8월 30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p>	<p>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p> <p>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p>	<p>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p> <p>(장학금을 지급함)</p> <p>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p> <p>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p> <p>TEL : 213-381-7755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비싼 집전화요금 이제 안녕~”

패밀리 알뜰 플랜

\$4.99 /월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8월16일~8월31일 가입자에 한함

잡아라! 

마이 코리아 넘버

지금 가입하셔서, 나만의 한국번호로 한국과 무제한 통화하세요!

충청남도청양군청 산하 기관인 www.mccnusa.com (조선어학회) 산하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가격·품질·혜택 불만 제로!

-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 수신 무제한 무료!
-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 ✓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 기존번호 이전 가능!
- ✓ 기존 집전화기 이용 가능!
-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 전세계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30일 환불보장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3시)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플랜을 원하세요?

Global Plan 글로벌 플랜

\$9.99 /월, TAX포함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전화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

\$14.99 /월, TAX포함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34.99/월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가입문의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월이용료 이외에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과 글로벌 플러스 플랜은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던 통신 요금액을 환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와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존을 위해 종이 용구서 대신 연필하고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8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1년도 최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2YR STK:049539



8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 | | |
|---|--|
|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 |
|---|--|
| 2009 CHEVY MALIBU BLUE STK P192398 | 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 2009 TOYOTA TACOMA WHITE STK P640770 |
| 2008 HYUNDAI ENTOURAGE GOLD STK P051414 |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 |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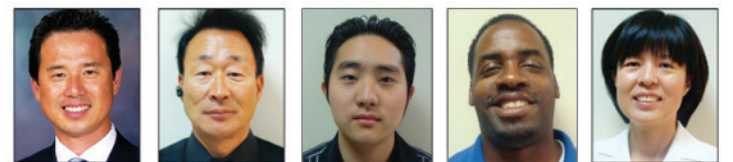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